

기준금리 오르니... 은행, 예·적금 금리 한방에 0.4%p '쑥'

(최대)

예대마진 폭리 비난에 줄줄이 인상 금융당국 압박도 빠른 인상에 한뭉신한銀, 적금 최고 연 4.2%로 올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주요 시중은행들 예·적금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했다. 예대금리차 확대에 따른 고객의 불만이 거세진 것도 금리를 올린 배경으로 꼽힌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0%로 0.25%포인트(p) 인상하자 은행권이 빠르게 예·적금 금리를 최대 0.4%p까지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예금금리 인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번 은행들의 금리 인상 행렬은 이전보다 빠른 편이다.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 때는 5~6일 만에 예금금리를 인상했지만 이번에는 이틀 만에 올랐다. 예금금리는 은행이 재량껏 비용을 따져 천천히 올릴 수 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했다. /뉴스

어 기준금리 변동 영향이 대출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최근 대출금리는 빠르게 상승했던 반면 예금금리는 인상 속도가 더디고 폭이 적다는 비판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압박한 것도 한 몫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여·수신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보 금융감독원장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현재 굉장히 벌어져 있다"며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예대금리차는 2.16%p다. 지난 8월 2.12%p, 9월 2.14%p로 3개월 연속 0.02%p씩 확대됐지만 11월 이후 예대금리차는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의 폭리 논란이 지속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루빨리 예금금리를 인상했다"며 "대출금리도 같이 오른 점이 서민들에게는 고통이지만 우대금리 상품도 다시 나와 상황에 맞는 상품을 권한다"고 말했다.

은행별 상품들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은 29일부터 정기에금 및 적립식예금 36종의 금리를 최대 0.4%p 인상한다. 대표적인 '안녕, 반가워 적금'은 1년 만기 최고 연 4.2%로, '신한 알.솔 적금'은 1년 만기 최고 연 2.6%로 적용 금리가 인상된다. 1년 만기 디딤씨앗적립예금은 금리가 0.4%p 인상된 연 2.05%로 변경된다.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정기에금 및 시장성 예금 17종과 적립식 예금 26종의 금리를 최고 0.4%p 인상한다. 대표적인 비대면 전용상품인 'KB반려행복적금' 3년 만기 기준 최고금리가 연 3.10%로 변경되며 KB더블모아예금은

1년 기준 최고 연 1.80%로 변경된다. 3년 만기 KB가맹점우대적금의 경우 최고금리가 종전 연 2.10%에서 연 2.50%로, 사업자우대적금은 종전 연 2.45%에서 연 2.85%로 올라간다.

우리은행도 같은 날 19개 정기에금과 28개 적금 상품의 금리를 최고 0.4%p 인상한다. 대표적인 상품인 '우리 슈퍼(Super) 정기에금'의 최고금리는 연 1.15%에서 연 1.45%로, '우리 슈퍼(Super)' 주거래 적금의 최고금리는 연 2.80%로, '우리 으쓱(ESG) 적금'의 최고금리는 연 2.05%로 인상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26일부터 적립식예금 5종에 대한 금리를 0.25%p~0.40%p씩 올렸다. 하나원큐 적금은 최고 연 2.30%에서 최고 연 2.60%로 상승했다. 또한 29일부터는 도전365적금 등 적립식예금 7종과 369정기에금 등 정기에금 6종에 대한 금리를 0.25%p 인상을 키로 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방역패스 등 논의

文, 오늘 방역점검회의 주재

위중증 급증, 병상 비상에 4개월 여 만에 회의 주재 백신추가 접종 대책도 논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자 및 확진자 증가세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지난 7월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이후 4개월여 만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올들어 다섯 번째 특별방역점검

회의를 주재한 것이기도 하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최근 고령층 중심으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크게 증가해 병상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힌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28명이며 가운데 국내 발생은 3893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56명, 위중증 환자 647명으로 역대 최다 수이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대한 평가,

코로나19 치료체계 및 백신 추가 접종과 방역 상황 등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회의 이후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도 한다.

문 대통령은 29일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증가 추세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병상



지난 24일 경남 합천댐 물문화관에서 열린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개시 관련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모습. /뉴스

확보, 관련 인력 확충 등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백신 추가접종 속도전도 주무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상황 진단 및 위중증 환자 증가와 관련 질문에 "확진자 수 증가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갈 때 예상한 수치이지만,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 염려가 된다"며 병상 확보 및 의료 인력 확충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자 증가세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일시 중단, 방역패스 확대 여부 등도 논

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일시 중단을 골자로 한 비상계획 발동 및 방역 강화 방안 등에 논의했지만, 결론 없이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일일 확진자 수가 30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고령층의 감염 확산으로 위중증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나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이 한계 상황"이라며 접종 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확대를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부처 간 논의를 거친 뒤 29일께 종합 대책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흥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흥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국채 ETF에 3주 만에 5억 달러 유입

>> 1면 '차이나 뉴스&리포트'서 계속

국채와 정책은행채 등에 투자하는 ETF에는 9월, 10월에 각각 미화 1억 9700만 달러, 2500만 달러가 유입됐고, 이달 들어서는 3주 만에 5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면 총 자산이 50억 위안을 넘어섰다.

홍콩 프리미엄파트너스 레베카 추아 설립자는 "진행 중인 글로벌 지수 조정 작업을 감안하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점점 더 중국 국채에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루이 아시아에셋은 올해 4월 중국 장기 국채와 정책은행채에 투자하는 ETF를 내놨다. 유입된 자산은 10억 위안에 달한다. 특히 최근 자금 유입이 늘면서 지난달 말 대비 ETF의 총 자산이 약 50% 증가했다.

다만 중국국채에 부정적인 투자자도 여전히 존재한다.

일본 공적연금펀드는 유동성과 결제 시스템 등을 이유로 중국 국채를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펀드의 자산규모는 193조엔으로 세계 최대 연 기금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